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여긴 어디?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다채

국립광주과학관

‘과학 왕국’ 연극...광고·동화 만들기

나도 발명가·3D 프린터 이해·활용

바림미디어스페이스

UCC, 스마트폰 영화만들기

미디어아트 입문·생명과과학멘토스쿨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무한상상실.’

시민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상상력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실제로 진행되는 무한상상실은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공간 등에 설치되는 공간이다. 특히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UCC 제작부터 3D 프린팅까지 다양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무한상상실은 전국적으로는 40곳이 넘고, 광주에는 거점형인 국립광주과학관을 비롯해 소규모 무한상상실인 바림미디어스페이스, 코끼리 무한상상실 등 3곳이 있다. 특히 거점형 무한상상실에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3D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30분에 진행되는 ‘신기한 과학 왕국’ 연극 수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스토리텔링 교육 프로그램인 ‘신기한 과학 왕국’은 과학 이론과 과학사 등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극으로 각색,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다. ‘파스칼 대포 발사하기’ ‘마술 글씨’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들’ 등을 주제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린다.

‘광고 만들기’와 ‘동화 만들기’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광고 만들기’는 자신에 대한 광고, 특정 주제에 대한 광고,

제품 광고 등의 제작 기법을 배우고 실제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을 사용해 광고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동화 만들기’는 기존 전래동화, 이슬우화 등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해 동화로 창작하는 강좌다.

아이디어발굴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과학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과학실험교구’ ‘나도 발명가’ 프로그램이 있다. ‘과학실험교구’에서는 현직 교사와 함께 교과서 과학실험을 설명하는 새로운 실험교구를 연구하고 제작하게 된다. ‘나도 발명가’에서는 발명·특허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참가자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했던 것들을 구상, 제작해본다.

1일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창의력 증진 교육프로그램’과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길러나가는 ‘아두이노 교육’ 등이 있다. 또 3D구현실에서는 ‘3D프린터의 이해·활용 교육’과 ‘3D펜 실습’을 할 수 있다. 문의 062-960-6210.

소규모 무한상상실 바림미디어스페이스에서는 ‘창의 프로그램’과 ‘체험공방교실-나만의 작품만들기’를 진행한다.

오는 5월2~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UCC, 스마트폰 영화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지은 감독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평범한 일상의 경험에 상상력을 더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강좌다.

‘사물, 공간 소리에 관한 실험’은 5월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차례에 걸쳐 열린다. 학생과 시민들이 다양한 소리를 채집해 여러 방법으로 실험한 뒤에 소리로 공연을 만들게 된다. 6~7월에는 바림 대표인 강민형 작가의 진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직접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미디어아트 입문’ 강좌가 열리고, 7월에는 ‘DHA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배재대 철학과 선우훈만 교수), ‘생명과과학멘토스쿨 3기’(전남대 의대 홍영진 교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목공체험 교실’ ‘3D펜 교실’ ‘LED액자 및 공책 만들기’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등 체험공방교실이 상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바림 웹사이트(<https://barimart.wordpress.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228-987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전당 미리 보고

29일

야한 풍류도 즐기고

전학·국악방송 음악회...27일까지 접수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전학 프로그램과 음악회를 진행한다.

29일 ‘빛의 숲에서 즐기는 야한 풍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당 건축 개념인 ‘빛의 숲’이 부각될 수 있도록, 야간에 진행된다.

전당 전학(오후 6시 30분, 6시 50분)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2회에 걸쳐 전당 입구(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출발, 전당 내·외부 공간을 이동하며 이루어지며,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등에서 담당 예술감독이 각 원의 비전과 개관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게 된다.

음악회는 오후 7시30분부터 예술극장 야외무대에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국악방송 개국 1주년을 맞아 특집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과 피리·생황 연주자 박지하로 구성된 여성 국악 듀오 ‘숨[su : m]’이 무대를 장식하며 고희안(피아노), 리차드 로(색소폰), 최진배(베이스), 한웅원(드럼)으로 구성된 재즈밴드 ‘플렐류드’(PRELUDE)와 국악인 전영란의 합동 무대도 마련된다. 음악회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5월에는 전당 전학과 함께 ‘아시아인문학 강좌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학을 원하는 사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toring2@korea.kr)로 사전접수하거나 전화(062-230-0142)로 신청하면 된다. 27일까지 회당 60명 선착순 접수.

/김미은기자 mekim@



보성소리의 멋

광주전통문화관, 내일 토요일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8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일상설공연으로 (사)보성소리보존회(대표 선미숙)의 ‘보성소리의 멋’을 선보인다.

보성소리는 전남 보성 지방에 대대로 전승돼온 판소리로 애절하고 절제미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 서편제를 창제한 강산 박유전 명창으로부터 시작해 정재근 명창을 거쳐 정응민 명창이 완성했다.

보성소리 ‘심정가’는 정응민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이어받아 성창순, 조상현 등 많은 명창이 부름면서 유명해졌다.

이번 공연은 남도민요로 잘 알려진 ‘뽕나무’와 ‘신 뱃노래’를 시작으로 보성소리보존회 대표 선미숙 명창이 심정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소나무의 향기에 비유해 아름답고 애뜻하게 표현한 창작전통무용 ‘송향’을 선보인다.

(사)보성소리보존회는 보성소리의 맥을 이으면서 국내외 교류를 통해 보성소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비아 공동가자

노랑나비 퍼포먼스·클래식...
오늘 예술의 거리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은 17일 오후 2시부터 ‘노랑나비’를 테마로 네 번째 ‘나비아 공동가자’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그랜드피아노와 함께하는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공연, 샬폴이춤, 서승아와 무용가들의 노랑나비퍼포먼스, 바이올린과 클래식기타 협연 등 15개 공연이 거리마당에서 열리며 석고핸드프린팅, 전통혼례복입어보기, 플라워아트, 민화그리기 등 21가지 시민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후 4시 예술의 거리 마당무대에서 열리는 ‘공동에 온 인문학 강연회’에서는 김명곤(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창조적 감각과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62-223-013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그림인가 조각인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25일까지 김강수전

김강수 작가의 그림은 독특한 입체감이 인상적이다. 물감과 나이프로 화폭에 피워내는 장미와 소나무 등은 조각과도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김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5일까지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자연의 선물’을 주제로 열린다. 김 작가의 17번째 개인전이다.

작품에는 화사하게 피어난 장미와 함께 꽃과 달, 바람과 소나무 등 남도의 자연이 담겼다.

화폭에 도드라지게 표현된 장미에서는 작가 특유의 입체감이 느껴진다. 나이프로 물감을 칠하고 깎아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 얻은 결과물이다.

소나무와 정자, 무등산, 바다 등을 담은 작품들에서는 고향 정취가 묻어난다. 특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다른 구도가 배치해가며 다양한 느낌의 작품을 선사한다.

작품 ‘달, 바람’은 화폭을 받치는 소나무와 중심을 가로지르는 장미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그안에 담긴 정자와 달의 정취가 아름답게 나타난다.

조산대 사범대 미술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한국미술의 오늘’, 일본 가고시마교류전 등에 참여했으며, 기독교 미술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전남도전과 광주시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575-8883.

/김경민기자 kki@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